

부동산 '빚투·영끌'에 2분기 가계 여유자금 반토막

국내 순자금 운용규모 13조...13조2천억 줄어 가계 여윌돈 41조2천억...전분기 대비 36.4조 ↓

부동산 투자 열기에 따른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으고)과 '빚투' (빚으로 투자)에 가계 여윌돈이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은 순이익 축소에도 고정자산 투자가 늘며 순자금 조달이 확대됐다. 반면 정부는 지출이 크게 축소되며 순조달 규모가 줄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부분의 순자금 운용 규모는 13조원으로 전분기(26조

2000억원)에 비해 13조2000억원 축소됐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 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예금이나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 운용액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을 뺀 자금을 뜻하는 자금조달액을 뺀 수치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여유자금은 41조2000억원으로 직전분기 77조6000억원보다 36조4000억원 줄었다. 2분기 기준 2022년 기록한 49조

원 이후 최저다. 가계소득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주택 순취득 증가 등 실질자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의 전기 대비 증가율은 1분기 2.0%에서 2분기에는 -3.1%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는 늘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물량은 1분기 6만4000가구에서 2분기에는 9만8000가구로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13만1000호에서 17만1000호로 확대됐다.

자금조달은 1분기 1조4000억원에서 2분기에는 1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분기 기준 2022년 33조8000억원 이후 최대다. 주택담보대

출 등 차입금을 중심으로 조달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다. 1분기 12조4000억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분기에는 16조원으로 확대됐다.

자금운용은1분기 79조원에서 2분기에는 55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여유자금 축소에 금융기관 예치금이 감소하면서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58조6000억원에서 21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지방증권 및 투자펀드는 2조90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뛰었다.

김성준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2분기에는 효과가 사그라들고, 주택 구입 수요가 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기업의 순이익이 축소되고, 고정자산 투자는 늘어난 영향이다. 상장기업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3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41조원)보다 축소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7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63조6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 늘었고, 설비투자는 1분기 51조2000억원에서 2분기에는 5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자금조달은 29조9000억원에서 43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초 차환 목적의 선발행 영향 등에 채권은 순상환했지만,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난 결과다. /뉴스

목포상의, 미래내일 일경협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목포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미래내일일경협 지원사업' 제2기 참여자를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협 지원사업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경협을 제공하며 직무 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의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무교육과정은 총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사전 직무교육(40시간) 및 멘토링이 이뤄지고 11월 4일부터 희망하는 기업에서 25시간씩 현장 업무를 통해 실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8주간 인턴을 진행한다.

광양제철소, 광양벤처밸리 '제1기 체인지업 캠프' 성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남 및 광주 지역 대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인 제1기 'CHANG&UP CAMP(이하 체인지업 캠프)'가 광양시 서울대 남부학술림에서 성료됐다.

지난 3일~5일,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체인지업 캠프는 포스코와 광양시가 광양지역의 창업 활성화, 스타트업 발굴 및 유치 등 광양벤처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관심있는 전남 및 광주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IR 발표회에서 박석현, 류석창, 류지인 학생의 팀(노동자 활용 가사도우미 서비스 플랫폼)이 종합평가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혁신상을 받았으며, 사업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임재훈, 박종원, 박세중 학생의 팀(스마트 모듈형 LED 디스플레이)은 우수팀으로 메이킹상을 받았다.

이들 2개 팀에는 총 200만원 상당 상품 지급, 포스코벤처밸리 참여시 가산점 제공, 창업시 사업 아이템 및 투자유치 관련 컨설팅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홈플러스 강정 브랜드 '술술' 신규 론칭 7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신규 론칭한 강정 브랜드 '술술'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9일 강정 브랜드 '술술'을 새롭게 선보이고 1000만 팩 이상 판매된 메가 히트 델리 상품 당당치킨의 성공 계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

광주, 시민체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AI기업 3개사...4000만원 이용권 차등 지원 등 혜택

광주시가 '인공지능 제품 시민 직접 체험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광주시는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인공지능기업 3개사를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추가 모집된 기업에는 4000만원의 이용권을 차등 지원하며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IR) 참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공지능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시민은 인공지능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일상에서 이용하고 기업은 고객 확보를 통해 기술 고도화와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신세계 '섬 방문 챌린지 시즌3'

광주신세계가 섬을 방문해 걸으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지원하는 '섬 방문 도장찍기 챌린지'를 3년 연속 진행한다.

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캠페인은 2022년부터 전남 섬 지역 방문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다.

올해는 섬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에게 전자책 이용권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

소셜 위함에 처한 전남 섬을 알리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한국섬진흥원과 협업해 12월 15일까지 70일간 진행한다.

섬 도장찍기 챌린지는 참여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참여자와 섬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기부형 챌린지다. 참가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챌린지' 탭에서 '한국 섬 신세계 도장찍기 챌린지'를 검색해서 시즌 3에 참여하면 된다.

챌린지는 '섬 방문 챌린지'와 '걷기 챌린지'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둘 중 하나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진도 조도초·거차분교·절도분교·모도분교·가사도분교 재학생 49명에게 전자책 연간 이용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기아 광주공장, 하늘 비상 '쏘울 조형물' 10년 만에 철거

다음 조형물 들어선다면...대표 차종 관심

기아 오토랜드 공장 정문에 설치됐던 조형물 '비욘드 모빌리티' (Beyond Mobility)가 10년 만에 비상을 하듯 날개 모양을 접었다.

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설치된, 기아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형물 '비욘드 모빌리티'가 철거됐다.

비욘드 모빌리티는 수십 개의 스틸 플레이트 조각들을 하나로 이어붙여 만든 높이 15m 규모의 조형물로, 상단부에는 광주공장의 대표 차종인 쏘울이 하늘을 비상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생산돼 한때 광주공장의 '얼굴마담'을 했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울'은 지난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타 화제를 모았고 이후 교황청 요청으로 기아는 교황이 탑승했던 쏘울 차량을 바티칸 시티로 보내기도 했다. 쏘울은 2021년 국내에선 판매가 중지됐지만 북미 지역 판매는 이어가고 있다.

이 조형물은 영국의 세계적 설치미술가인 제리 주다(Gerry Judah)가 디자인한 것으로 주다는 전 세계 유명 자동차기업의 상징 조형물 디자인과 제작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아차는 당시 조형물을 통해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을 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 (The Power to Surprise)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아차의 역동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은 조형물의 철거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관계자는 "조형물은 철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공장 정문을 조만간 리모델링 할 예정이어서, 그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설 경우 이미 국내에서 단종된 쏘울을 대신할 차량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권형안 기자



한전KPS, 대국민 소통채널 신설

제안서 접수·적정성 심의·효과 검증 원스톱 관리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와 효능 개선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소통채널을 개설한다.

한전KPS는 회사 누리집에 사회공헌활동 협업 소통채널 '국민행복나눔터'를 개설해 분사 소재지인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민 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단체나 지자체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필요한 유관기관은 사내 이메일, 대면 방식 등으로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설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협업 제안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서는 매월 사회공헌심의위원회의 정기 심의에 상정된다.

이후 적정성 검토 과정을 포함한 추진계획과 연계성 등을 면밀하게 살핀 후 사업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종료 이후엔 환류절차를 거쳐 수혜자 효능감이 개선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도입 단계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엔 전국 사업소 추진 과제와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신동혁 기자

GIST, NASA 과학자 초청 세미나

"토양수분 위성자료 연구협력"...실시간 번역 자막 제공

기술' ▲JPL 안드레아스 콜리엔더 박사, '토양수분 검증' ▲나사 라자트 빈들리시 박사, '토양수분 복원' ▲나사 박정환 박사,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나사 근무' 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토양수분 관련 위성 자료 연구시설 및 지역 구축 논의를 위해 GIST를 방문한다.

세미나를 주관한 환경·에너지공학부 김형록 교수는 지구 전체의 토양수분 축적을 위해 나사가 지난 2015년 초 아 올린 SMAP(Soil Moisture Active Passive) 위성이 보내오는 데이터를 교정·검증하는 GIST-NASA 연구협력을 위해 나사 측과 교류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어를 구사하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이 AI 자동번역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번역되어 한글 자막으로 제공된다.

세미나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를 접속하면되며,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티셔츠·모자·머그컵 등 NASA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동기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중기·벤처 키우자"...200억 펀드 조성

중기부 95억·행안부 45억 공동출자, 민간투자유치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와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일부터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인구활력펀드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터운 지원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형안 기자